



hananimuibep.org

부록 8e: 십일조와 첫 열매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이 페이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들을 다루는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부록 8a: 성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법](#)
- [부록 8b: 제사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c: 성경의 절기들 — 오늘날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d: 정결 법 — 성전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e: 십일조와 첫 열매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이 페이지\)](#)
- [부록 8f: 성찬 예식 — 예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이었다](#)
- [부록 8g: 나실인과 서원 법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h: 성전과 관련된 부분적·상징적 순종](#)
- [부록 8i: 십자가와 성전](#)

십일조와 첫 열매는 이스라엘의 소산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농이었습니다 — 땅에서 난 소산(신명기 14:22)과 가축의 소산(레위기 27:32)에서 나온 것이며 —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에서, 자신의 제단 앞에서, 레위 제사장들의 손에 맡기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들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그것들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제사장직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성전 의존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대체물은 순종이 아니라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율법이 명령한 것

율법은 십일조를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 등 모든 소산의 십분의 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신명기 14:22-23).

십일조는 지역적으로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한 교사나 지도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임시로 돈으로 바꾸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현금 기부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그 돈은 반드시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신명기 14:24-26).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속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민수기 18:21). 그러나 레위인들조차도 그들이 받은 십일조에서 다시 “십일조의 십일조”를 제단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민수기 18:26-28). 이 모든 제도는 성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첫 열매는 더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수확의 처음 열매를 직접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백을 입으로 해야 했습니다(신명기 26:1-10). 이 행위는 성소와 제사장직과 제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스라엘은 이 법들을 오직 순종이 가능했던 유일한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곧, 십일조와 첫 열매를 실제로 성전에 가져왔습니다(말라기 3:10).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버전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율도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새로운 해석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순종이었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셋째 해의 십일조 또한 레위인들에게 의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으며 분배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신명기 14:27-29). 모든 단계에서 십일조와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체계 안에 존재했습니다. 곧, 성전, 제단, 레위인, 제사장, 의식적 정결입니다.

왜 오늘날 순종이 불가능한가

오늘날 성전은 없습니다. 제단도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직도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결 체계는 성소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조들이 없으므로, 누구도 십일조나 첫 열매를 율법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러 날 동안 제사도 없고 기둥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호세아 3:4). 그분이 성전을 제거하셨을 때, 그 성전에 의존하는 모든 계명을 순종할 능력도 함께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 어떤 기독교 목사, 선교사, 메시아닉 랍비, 또는 그 밖의 사역자도 성경적 십일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떤 회중도 첫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 어떤 상징적 “현금”도 이 법들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순종을 정의하며, 그 외의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너그러움은 권면되지만 — 그것은 십일조가 아니다

성전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모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궁핍한 자를 향한 너그러움을 권면하십니다(신명기 15:7-11; 마태복음 6:1-4; 누가복음 12:33). 기꺼이 나누는 것은 선합니다. 교회나 어떤 사역을 재정적으로 돋는 것도 금지된 일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지원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그러움은 십일조가 아닙니다.

십일조는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 고정된 비율
- 특정한 품목(농산 소산과 가축)
- 특정한 장소(성소 또는 성전)
- 특정한 수령자(레위인과 제사장)
- 의식적 정결 상태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너그러움은:

-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비율이 없습니다
- 성전 율법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 법규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 십일조나 첫 열매의 대체물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반드시 십 퍼센트를 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지도자에게도 — 고대든 현대든 — 십일조를 대신할 새로운 의무 협약 제도를 발명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가르치지 않으셨고, 선지자들도 가르치지 않았으며, 사도들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발명된 십일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성전 체계가 사라졌어도 “목적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재정 협금을 “현대 십일조”로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상징적 순종입니다. 율법은 십일조가 재해석되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수령자가 재지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교회나 메시아닉 회중은 성전이 아닙니다. 기부는 첫 열매가 아닙니다. 협금함에 넣은 돈이 순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사, 절기 예물, 정결 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이 명령한 것을 상징적 발명품으로 대체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존중한다

십일조와 첫 열매는 영원한 계명으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제사장직과 정결 체계를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그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걸어가며, 할 수 있는 대로 너그러이 나눕니다 — 십일조로서가 아니라, 첫 열매로서가 아니라, 어떤 비율에 대한 순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비와 의의 표현으로서입니다.

대체물을 발명하는 것은 율법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대체물을 발명하지 않는 것은 그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